

남아공 총선 임박...ANC 30년 단독 집권 깨지나

(아프리카민족회의)

아파르트헤이트 종식 후 7번째 총선...정당 지지를 30%대 추락 과반 의석 실패 땀 라마포사 대통령 연임 위해 연정 구성 불가피

남아프리카공화국 총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변의 현상'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94년 아파르트헤이트 종식 이후 7번째인 이번 29일(현지시간) 총선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민족회의(ANC)가 단독 집권에 실패할 지, 총선 이후 의회에서 '아프리카 맹주' 남아공의 대통령이 선출되는 점 등이 주목받고 있다.

남아공은 총선으로 구성된 의회가 14일 이내에 첫 회의를 열어 대통령을 뽑는 대통령 간선제다. 통상 다수당 대표가 대통령으로 선출되기에 남아공 총선은 사실상의 대선이기도 하다.

이번에는 집권 여당인 아프리카민족회의(ANC) 대표인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이 연임을 노리는 가

운데 원내 제1야당인 민주동맹(DA)의 존 스티헤이즌 대표, 제2야당 경제자유전사(EFF)의 줄리어스 말레마 대표 등이 도전하고 있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올해 71세로 1994년 아파르트헤이트 종식을 위한 협상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다.

자신의 농장에서 발생한 거액의 미화 도난 사건과 관련, 불법 의혹이 2022년 제기됐으나 같은 해 12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재선에 성공, 연임에 도전한다.

그는 좌파에겐 너무 기업 친화적이라고, 우파로부터는 우유부단하다고 비판받으면서 차라리 사업가로서 더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을 만큼 대통

령으로서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스티헤이즌 DA 대표는 주요 4개 정당 대표 중 유일한 백인으로 2020년 처음 당 대표로 선출된 뒤 지난해 4월 재선에 성공했다. 총선 이후 DA가 참여하는 연정이 구성된다면 올해 48세인 그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도 있다.

빨간 모자가 트레이드 마크인 말레마 EFF 대표는 올해 43세로 주요 4개 정당 대표 중 가장 젊다. ANC 청년 지도자 출신으로 2012년 내부 불화로 쫓겨난 뒤 이듬해인 2013년 급진 좌파 정당인 EFF를 설립했다. 심각한 불평등 문제의 해결을 위해 토지 재분배와 주요 경제 부문의 국유화 등 급진적인 개혁을 주장한다.

남아공 민주화의 아버지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이 몸담았던 정당인 ANC 영향력의 변화도 눈길을 끈다.

ANC는 1994년 총선에서 62.7%의 득표율로 처음 집권한 이래 66.4%(1999년), 69.7%

(2004년), 65.9%(2009년), 62.2%(2014년) 등 줄곧 60%를 넘겨 정권을 지켰다. 직전 2019년 총선에서는 57.5%를 득표해 의회의 전체 400석 가운데 230석을 확보했다.

하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작년부터 ANC의 지지율이 50% 아래로 떨어진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더니 올 들어서는 줄곧 40%대에 머물고 있다. 지난 3월 한 여론조사에서는 39%로 집계되며 처음으로 40%에 못 미치기도 했다.

유권자가 ANC에서 떨어진 가장 큰 원인은 '민생고'다. 집권 여당은 높은 실업률과 만연한 범죄, 부패, 빈부 격차, 물과 전력 부족을 해결하지 못했다. 특히 실업과 빈곤은 가장 시급하다. 소수의 백인을 위해 흑인을 잔인하게 탄압한 아파르트헤이트 이후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흑인 빈곤층 수백만의 삶은 좋아지지 못했다.

최근에는 유권자 10명 중 7명꼴로 ANC 대표인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제1야당인 DA의 득표율이 20%대로 예상됨에 따라 ANC는 일단 다수당 자리를 지킬 가능성은 커 보인다. 그러나 여론조사대로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라마포사 대통령은 연임을 위해 연정을 구성해야 한다.

DA 등 주요 야당이 ANC와 라마포사 대통령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라는 점에서 연정이 구성될지도 불분명하다. 그렇게 되면 ANC는 군소 정당들과 함께 연정을 구성해 과반 의석을 노릴 수도 있다.

남아공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전 7시~오후 9시 전국 2만2300개 투표소에서 투표가 마무리되는 대로 개표를 시작해 수시로 중간 집계 결과를 발표한다. 관련 법에 따르면 최종 개표 결과는 7일 이내에 발표해야 하지만 통상 3일 안에 발표했다. 이번 총선의 최종 결과도 다음 달 1일께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이스라엘-하마스 '끝없는 전쟁'

이스라엘, 라파 폭격 최소 35명 사망...하마스, 텔아비브 등에 로켓포

휴전협상 재개 움직임에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교전이 격화했다.

이스라엘은 유엔 최고법원의 공격 중단 명령을 받고도 가자지구 난민촌을 공습했다. 앞서 하마스는 이스라엘 텔아비브 등지에 로켓을 무더기로 발사했다.

AP, AFP,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하마스 측 가자지구 당국, 팔레스타인 의료진은 이스라엘군이 26일(현지시간)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의 서부에 있는 탈 알술탄 피란민촌을 공습했다고 밝혔다. 팔레스타인 응급의료팀은 이스라엘의 폭격 때문에 숨진 이들이 최소 35명이라고 전했다.

하마스가 통제하는 가자지구 통치 당국도 이번

공습으로 "35명이 사망했으며 수십명이 다쳤다"며 사상자 대부분 어린이와 여성이라고 주장했다.

공습이 이뤄진 알술탄 피란민촌은 이스라엘군이 라파 동부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자 대피한 주민 수천 명이 지내고 있던 곳이다.

추후 드러나는 진상에 따라 이번 공습은 국제인도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전쟁범죄로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하마스 측이 주장하는 전쟁범죄를 비롯한 국제법 위반 정황에 대해 이스라엘군은 정당한 군사행동이라고 반박했다.

이스라엘과 7개월 넘게 교전하는 하마스는 이번

공습에 크게 반발해 대대적 보복을 선포했다.

하마스는 "범죄자 점령군이 피란민 텐트에 대해 저지른 시오니스트 학살에 대해 요르단강 서안, 예루살렘, 점령지와 해외의 우리 국민들에게 분노하여 봉기해 행진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스라엘 폭격에 맞서간 앞서 하마스는 텔아비브를 비롯한 이스라엘 중부 지역을 겨냥해 수개월 만에 10여발의 중장거리 로켓을 발사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향해 중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것은 작년 12월 이후 근 6개월 만이다.

국제사회는 중동을 넘어 글로벌 정세에 불확실성을 더하는 가자지구 전쟁의 종식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하마스 내에서도 강경파인 군사조직 수뇌부와 이스라엘 극우 연립정권은 물리칠 기색이 보이지 않는다. /연합뉴스



산사태로 수백명 사망 26일 남태평양 섬나라 파푸아뉴기니 마이프 물리타카 지역 암발리 마을에서 사람들이 실종자를 찾고 있다. 지난 24일 발생한 대형 산사태로 암발리 마을 150채 이상의 가옥이 매몰되면서 670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영국 총리, 64년만에 '의무복무제' 공약

집권 보수당, 총선 공약 내걸어 "2025년 9월 시범 도입"

리시 수백 영국 총리가 이끄는 집권 보수당이 '의무복무제 부활'을 7월 조기 총선 공약으로 내걸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현지시간) AFP 통신, BBC 방송 등에 따르면 수백 총리는 전날 오후 발표한 성명에서 18세를 대상으로 12개월간 정규군 복무를 하거나 한 달에 한 번씩 주말마다 지역사회에서 봉사하는 방식의 의무복무제 도입 구상을 발표했다.

의무 복무 대상이 남성만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수백 총리는 "젊은이들에게 공유된 목적의식과 국가에 대한 새로운 자부심을 불어넣을 수 있는 의무복무제 모델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당은 2025년 9월부터 시범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세부적인 내용은 정부 자문 위원회 격인 왕립위원회에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25억 파운드(약 4조 3600억원) 정도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 가운데 15억 파운드는 영국 공유변영금(UKSPF)에서, 나머지는 탈세·절세 추징금에서 충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백의 경쟁자인 키어 스타머의 노동당은 "아이디어가 바닥 난 정당(보수당)의 진지하지도 않고(공약 이행을 위한) 절박한 예산 뒷받침도 없는 공약"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또 "이는 계획이 아닌 수십억 파운드가 소모될 수 있는 (정책) 재검토"라며 "보수당이 나폴레옹 이후 군대 규모를 최소화했기

때문에 필요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군 참모총장을 지낸 앨런 웨스트 제독은 의무복무제 부활은 국방예산을 고갈시킬 "완전히 제정신이 아닌"(bonkers) 계획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은 밝혔다.

영국은 제2차 세계대전 남성과 일부 여성을 징집했고 1947~1960년까지 남성만 대상으로 '국가 의무복무제'를 시행한 뒤 의무복무가 폐지됐다.

영국군 규모는 2010년 기준 10만여명에서 올해 1월 현재 7만 3000명으로 줄었다.

영국 사상 첫 유색인종 총리로 취임한 지 1년 7개월 된 수백 총리는 보수당의 지지를 부진에도 자신이 안보와 경제를 지킬 최적임자라고 내세우면서 7월 4일 조기 총선을 치르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14년간 집권해온 보수당이 제1야당 노동당에 20%포인트 이상 뒤지는 지지율 열세를 보이면서 현직 언론들은 정권교체 가능성에 무게를 실고 있다. /연합뉴스

사이클론 벥골만 강타...방글라·인도 100만명 대피

공항·항구 폐쇄 긴급구호 대비 돌풍에 전력망 마비·1명 사망 필리핀, 태풍에 5천여명 대피

인도와 북동부 벥골만에서 올해 첫 대형 사이클론이 발생, 인도와 방글라데시 정부가 약 100만명의 주민을 대피시켰다.

27일(현지시간) AP·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께 사이클론 '레말'이 인도 북동부와 방글라데시 남부 해안 지역을 강타했다.

인도 기상청(IMD)은 레말이 방글라데시 몽글라 항구와 인도 서벥골주(州) 사가르 섬 해안 지역을 최대 시속 135km의 풍속으로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영향으로 이 지역 전력망이 파손되면서 주민 수백만 명이 전력 공급이 중단됐다. 또 인도 쿨카타에서는 콘크리트 덩어리가 떨어져 한 명이 사망했으며 해안 지역 가옥들이 파손됐다.

이처럼 강력한 사이클론이 접근하자 방글라데시 재난관리·구호부는 전날 해안 지역 전역에서 약 80만명의 주민을 대피시켰고,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해당 지역 모든 학교에 휴교령을 내렸다.

또 남동부 도시 차토그램의 공항을 폐쇄하고 콕스바자르에서 오가는 모든 국내선 항공편을 취소했다. 방글라데시 최대 항구인 치타공 항구는 하역 작업을 중단하고 부두에 있던 배를 심해로 이동시켰다. 인도도 해안 지역 주민 약 11만명을 대피시켰고, 인도 해군은 필요할 경우 긴급구호 활동에 나서기 위해 군함과 항공기, 잠수부 등을 대기시켰다. /연합뉴스

조선의 시인
아홉번째
시집

제9 시집
조선의 시집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조선의 시집

담양에서 길어 올린 아름다운 시편들의 향연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

이 시집은 담양을 사랑하는 조선의 시인이
몸소 시가 된 담양의 현사가 아닐까.

”

이성혁(문학평론가)

시인의 말

과거가 / 미래를 향해 / 현재에 살아 있는 곳
담양은 / 말로만 듣는 것보다 / 직접 와서 보면 안다
왜 다시 오고 싶은지

조선의

농민신문 신춘문예, 기독교 신춘문예,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송순문학상, 신석경문학상, 신성문학 대상 등 수상
시집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밑서』,
『꽃으로 오는 소리』,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임의 문장』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감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감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감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감사

지은이 | 조선의

펴낸 곳 | 도서출판 상상인 ☎ 02-747-1367